




1000번째 수요집회가 열리던 그 곳!

지난 12월 14일,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매우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이 집회를 열었으니, 꼬박 19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수십여 명이 모여 시위하던 게 이날은 천여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특히, 뿔속까지 친미 친일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본의 극우세력들과 궤를 같이 하는 한국의 극우세력들도 준동하며, 일본의 침략과 점령의 역사를 왜곡하고 할머니들의 유린당한 인권을 외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00번째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해결된 것은 여전히 없습니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글, 사진 : 평화군축팀장 조승현

흑룡의 세찬 기운이 어두운 역사를 이길 것

상임대표 문 규 현 신부

고맙습니다. 평통사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아주 큰 소리로 전합니다. 지난 2011년, 특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막는 강정마을 현장에서 우리 평통사 활동가들, 회원들의 헌신과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연행, 재판, 벌금, 구속 등을 반복적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로서도 맘고생이 컸지만, 갖은 고초를 씩씩하게 웃으며 넘기는 님들을 보며 더욱 눈물겹고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차곡차곡 진행되어온 5년 여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고 외면했던 이 문제를 평통사 품에 꼭 끌어안고 온 몸으로 지난하게 싸워왔습니다. 덕분에 지난 해 말 제주 해군기지 예산 전면 삭감이라는 아주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어 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화를 그저 평화이슈나 논리, 또는 성명서나 발표하는 외형적 피상적 접근이 아닌, 전쟁기지 건설 피해자인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긴 시간 동고동락 해왔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눈물, 주민들의 고통, 파괴되는 마을공동체, 깨져가는 구럼비 바위와 함께 평화가 무엇인지, 평화를 통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 현장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진실로 평화를 살고 평화를 건설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2년은 명백하게 다를 것입니다. 용의 해에 더해 흑룡의 해라고 신나게 시끌벅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임진년에 왜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전자 편을 듭니다. 흑룡의 세찬 기운이 임진년이라는 어두운 역사를 이길 것입니다. 올해는 분명 징글징글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 몸도 마음도 제대로 가볍고 신명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그간의 눈물을 위로할 것이고, 즐거움이 지난 고통을 치유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도약을 향한 굼직굼직한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해 총선 대선을 연이어 치룹니다. 전례 없이 민주주의와 평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비상하고 능동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이병호 주교는 '투표소는 고해소(고백소)'라는 신학적 해석으로 총선 대선에 임하는 우리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북한 체제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결과에 따라 세계 미군들의 전략적 배치에도 중요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재앙이 불러온 탈원전 운동과 반핵무기 운동이 합쳐지는 의미 있는 역사적 현장도 3월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확실하게 종식시키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며 평화협정 체결을 향한 각종 희소식들이 곳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대되고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우리의 주체적 참여와 선도적 실천을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이에 걸맞기 위해 우리 평통사도 조직과 활동 면에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면 그 또한 결단력 있게 실행해야겠습니다. 2012년, 도도히 흘러가고 거대하게 밀려오는 평화의 물결을 더 넓히고 깊이 만드는 뜻 깊은 자리마다, 우리 평통사의 역사가 다시금 울곧게 새겨지리라 믿습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에게도 건강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임진년 새해를 열며!

상임대표 배 종 열

임진년 새해를 맞아 평화누리통일누리 독자여러분께 평화와 희망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해는 뼈아픈 아픔과 환희가 교차되는 한해였습니다. 기대했던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는 열리지 않은 채 우리의 지도자들이 줄줄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민중의벗 정광훈 의장, 통일운동의 어머니 박용길 장로,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민주화의 횃불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6,15와 10,4선언의 주역이셨던 김정일 국방위원장, 쌍용 해고노동자들의 연쇄 죽음들이 우리를 몹시 아프게 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미FTA 날치기 비준은 우리를 더욱 분노케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도 있었습니다. 희망버스와 SNS, 박원순 야권단일후보의 서울시장 당선 등입니다.

새해는 임진년 용의 해입니다. 용은 동양사상에서는 변혁(變革)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올해는 민중의 움직임에 따라서 세상이 바뀔 해임을 계시하는 해라 믿어야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주변국들이 올해 모두 권력교체기입니다. 우리 조국의 반쪽인 북에서는 이미 후계구도를 다져가고 있고, 미국, 중국, 러시아가 권력교체기이고 남에서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문제와 99%의 민중생존권이 달려있는 한미FTA 발효 등을 앞둔 시기입니다. 이런 변혁기에 우리 평통사는 우리 고유의 기본과제와 실천에 대하여 더욱 온 조직으로 강고한 합의와 다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역사변혁기의 전선체속에서의 진보진영의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기여할지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평통사는 우리 조국반도의 역사를 바로 분석하고 분단과 전쟁, 그리고 60여년을 지속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마련하여 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운동, 한미동맹 폐기운동을 실현해왔습니다. 이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몇 년동안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지지하는 추진위원과 길잡이를 모집하고 7·27 평화협정 실현대회를 개최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과제의 실천과정에서 정세의 불확실성, 지역조건의 상이, 실천방법에서의 약간의 견해차이 등으로 실천과정이 혼연일체가 되지 못했음을 서로 인정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의와 다짐을 새롭게 해야하리라 봅니다.

남한사회의 화두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며 그 재원으로 세수확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통일 이전이라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현재 미군에게 공여하는 연간 4조원 가까운 재원을 복지에 돌리고, 남북이 군축을 실현해서 우리 국방비를 독일 수준으로 줄이면 연간 15조원의 국방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문제 등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니 평화협정과제는 경제·안보 양면에서 생존권의 문제겠습니다.


지구속의 땅과 바다는 모든 생명체에 영양(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모체입니다. 동양사상에서는 하늘을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이니 생명을 상징하고 평화를 상징하고 모든 재화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인 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외세에 내주서도 양보해서도 안 될 존재입니다. 땅과 바다는 지켜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택미군기지, 군산미군비행장, 제주해군기지 등은 폐기될 때까지 싸워야하고 미군은 내보내야하지 않겠어요?

미국의 군사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G2로 떠오르는 중국을 포위하기위해 유럽, 중동의 미군을 많은 부분 철수하여 동북아로 집중시키겠다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자국의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2012-2016기간에 국방비를 1,780억달러를 감축하겠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주둔비와 기지이전비를 줄여야 할테니, 미군당국이 그 비용을 우리에게 덤터기를 씌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잘 싸워야하겠지요. 여기에 더해 글로벌호크 같은 불필요한 무기 도입도 막아야 하겠습니다.

미국은 우리 민중을 WTO, IMF 등으로 몰아치다가 한미FTA로 1%의 투기자본의 이익을 위해 자국의 경제위기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우리 민중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전민중의 지속적인 연대투쟁과, 정치권에 대한 연대와 압박투쟁으로 기필코 폐기시켜야합니다

평통사는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힘>을 통해 야권연대를 촉구하고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한미FTA를 폐기하도록 견인하여 새롭게 구성될 국회와 정부가 「미군내보내는평화협정」 「한미군사동맹폐기」과제를 정책과제로 채택하도록 해야합니다.

저도 요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자주 합니다. SNS를 익히고 쓰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SNS를 통해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실천을 도모하고 있더군요. #gangjung 이나 #koreapeace 같은 해시태그의 활용도 눈에 띕니다. 우리 평통사도 SNS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해서 우리의 과제와 실천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2012년에는 우리 평통사가 더욱 젊고 생동하는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2012년 총 · 대선 승리와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를 기원하는 비나리

유세차,
임진년(壬辰年) 정월 열이틀에
찬바람 뽕뽕부는 미제 조선총독부 앞에 웅기종기 모인
우리 중생들이
천지신명께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희망을 담아
빌고 비오니
부디 우리 소원을 들어주소서!

극단적 군사패권과 신자유주의로
영원할 것 같던 미 제국주의가
몰락의 길을 걷는 오늘,
힘도 돈도 없어
'두 개의 전쟁'전략을 '1+'전략으로 후퇴하면서도
개 품은 있는 대로 잡으면서
아시아 · 태평양에서는 전력을 줄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오늘,
그로 인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동맹국인 한국의 자원을 갈취하여
돈없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오늘,

반세기 넘게 군사주권을 빼앗기고
나라 곳곳에서 미군범죄가 활개치고
고엽제 독극물이 마구 묻고 뿌려져
아름다운 강산이 더럽혀지고
공짜로 땅을 내주고
공짜로 기지도 지어주고
덤으로 방위비분담금이라는 씹짓돈까지 쥐어주고
미제무기는 가장 많이 사주고
한국민 혈세로 미항공모함 기항지를
아름다운 제주 강정마을에 지어주고도
수 틀리면 '미군철수한다' 내지르지만 하면

사시나무 떨듯 떠는
승미사대주의에 찌든 이 땅의 지배자들에게
철퇴를 내리소서!

60년 넘게 핵무기로 상대를 위협한 미국이
북의 핵시설을 문제삼아 불법이라 떠들고
비핵화 진정성을 보여야 대화할 수 있다며
식량을 무기로 비핵화를 요구하는
야비하고 본말이 전도된 주장으로
6자회담이 3년이나 지체되고 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북에 대한 적대정책으로 일관해온 이명박 정권은
상대의 대국상에 조문은 고사하고
조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다른 나라들은 앞 다투어 북과의 대화에 나서고 있는데
아직도 천안함 · 연평도 사건을 들먹이는가 하면,
6자회담 선결조건을 내세우면서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
이를 바라는 사람들의 복장을 터지게 하고 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살인적 교육환경에서 자살하는 중고생이
한 해 수백 명이요
등록금 폭탄에 대학생들은 알바와 휴학을 번갈아 하다가 그
도 안 되면 학교를 그만두고
대학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
청년실업자로 전락하여 거리를 헤매고
기껏 취직해야 비정규직,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처절한 투쟁 끝에 잘린 쌍용차 등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한미FTA, 소값 폭락으로 농민은 망연자실하고
도시 노점상과 철거민은 거리에서 삶터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어 구석으로 내몰리고
중소영세상공인은 언제 문을 닫을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물가는 폭등하는데 월급은 제자리요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이 되어 짹짹 돌아가니
민생은 총체적 도탄에 빠져
고통의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BBK는 내곡동으로 댔고,
내곡동은 디도스로 댔고,
디도스는 형님 비리로 댔고,
형님 비리는 최시중 비리로 댔고,
최시중 비리는 돈봉투로 댔는
도덕적으로 완벽히 망가진 정권에서
של 새없이 터져 나오는 온갖 부정과 부패의 악취에 취해
어린 중생들은 정신이 몽롱하옵니다.

민주주의자 김근태는 갔는데
고문기술자는 '고문도 예술이고 애국'이라고 떠벌이고
나꼼수의 봉도사도 큰 집으로 가고
조중동 종편은 정권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보호 속에 '박비어천가'를 쏟아내고
국가보안법은 시퍼렇게 살아
자주와 평화 · 통일을 외치는 애국자들을 잡아가두고
검열과 사찰, 감시와 통제 속에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지신명이시여!
6 · 2지방선거에서, 4 · 27재보선에서, 서울시장선거에서
국민들은 색깔론, 북풍몰이를 뚫고
한나라당의 패악을 심판했고
희망버스, 나꼼수, 안철수 현상 등을 통해
공감과 소통, 연대와 참여의 광장을
열어가고 있음을 보시나이까?
다가오는 총 · 대선에서
이명박-한나라당을 응징하겠다 절치부심하는

2040세대의 굳게 다문 입술을 보고 있나이까?
천안함 ·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아,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이구나,
언젠든 전쟁이 다시 터질 수 있구나,
절감한 지역주민들이
들고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계시나이까?
2012년 흑룡의 기세로
4월 총선에서 승리하여 국회를 점령하고
12월 대선에서 승리하여 청와대를 점령하여
사악한 무리들을 몰아내고
그 여세를 몰아
휴전선 철조망을 돌돌돌 말아
태평양 바다에 처박아 버릴
민중의 쌓이고 쌓인 분노를 느끼시나이까?

천지신명이시여!
그리하여 마침내 자주와 평화, 통일과 번영의
새 시대에 온 겨레가 한바탕 대동 춤을 출 때까지
그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에게 단결의 지혜를 허락주소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임진년 정월 열이틀
148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참가자들이 두 손 모아
상향 



현실을 바꾸는 영화의 힘 -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정 서 진 인천평통사

현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다시 현실에 작용하여 현실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실제 한 청각장애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영화화 해 흥행에 크게 성공한, 바로 영화 <도가니>이다. 이런 영화의 흥행은 다른 영화들의 흥행이 갖는 의미와 그 의미가 크게 다르다. 관객들이 단순히 그 영화를 보고 느끼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해결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잊혀져 가는 진실을 영화를 통해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한 또 하나의 영화가 있다.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미군속 자녀 아더 패터슨과 미국 국적의 한국인 에드워드 리로, 2명 중 최소한 한명은 범인임이 명백한 사건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은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렇게 잊혀질 뻔했던 사건은 영화가 만들어진 2009년 9월 이후 재수사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며 수사를 재개하였다.

공소시효를 불과 3개월 앞둔 2012년 1월 현재, 패터슨을 한국법정에 세우기 위해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 개요 : 미스터리, 범죄, 드라마 /

한국 / 2009. 09

- 감독 : 홍기선

- 출연 : 정진영(박검사 역),
장근석(피어슨 역),
신승환(알렉스 역),
송중기(故 조중필 역),
오광록(김변호사 역)

조중필 살해사건 개요

1. 발생일시: 1997년 4월 3일 밤 11시경
2. 발생장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버거킹 햄버거 가게 화장실
3. 피해자: 조중필 (남, 당시 22세)
4. 용의자:

용의자1. 아더 제이 패터슨(남, 1977년생, 한국계 미국인(멕시코계 미군무원 父, 한국인 母), 미국 갠단 '노르테14' 단원)

용의자2. 에드워드 케이 리(남, 1977년생, 미국 국적의 한국인)

5. 살해방법: 잭나이프로 오른쪽 목 등 9군데 난자

6. 용의자 수사: 두 용의자의 엇갈린 진술과 진술번복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안이하게도 에드워드를 살인죄로, 패터슨은 흥기소지와 증거인멸에 따른 폭력죄로만 기소하였다.

7. 재판 경과: 1심에서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은 패터슨은 1998년 8.15 특사로 사면되어 미국으로 출국하고, 대법원까지 간 에드워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는다.



영화속 두 용의자



영화속 유족

영화 속 한 장면 -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다?

1997년 9월 20일, 서울지방법원 319호 법정.

재판관은 피고인석에 앉은 두 명의 10대 피고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여기에 앉아있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범인인 것은 맞습니까?”

알렉스 (에드워드 리의 극중 이름, 신승환 배역) : 네

피어슨 (패터슨의 극중 이름, 장근석 배역) : 네

“알렉스에게 묻겠습니다. 조중필씨를 살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알렉스 : 제 옆에 앉아있는 피어슨입니다.

“피어슨에게 묻겠습니다. 조중필씨를 살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피어슨 : 제 옆에 앉아있는 알렉스입니다.

한미 양국의 사건 해결을 위한 보다 성의 있는 태도와 책임

검찰이 현장에 있던 다른 용의자 에드워드를 살인죄로 잘못 지목해 유력한 용의자 패터슨이 몰래 한국을 빠져나가면서 사건은 공소시효가 채 3년도 남지 않았던 2009년까지 미국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미제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 사건은 2009년 영화 개봉이후 거센 재수사 요구로 인해 수사가 재개되고, 2011년 5월 패터슨이 또 다른 범죄행위로 체포되

영화 개봉 이후 사건 재수사 전개

- 2009년 9월 9일 :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개봉
- 2009년 9월 12일 : 검찰,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
- 2011년 5월 17일 : 美 검찰, 패터슨 검거
- 2011년 6월 9일 : 패터슨 구속 수감
- 2011년 11월 2일 : 美 법원,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 개시
- 2011년 12월 22일 : 검찰, 살인 혐의로 패터슨 기소

면서 사건 해결의 마지막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최소 1년이 필요한 미국의 송환 절차와 재판을 모두 거쳐서는 공소시효를 넘길 수 밖에 없다. 미국 현지에서도 패터슨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으나 미국 정부나 사법부는 아직까지 신속한 송환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시간을 끌면서 자국민을 일방적으로 비호할 것이 아니라, 패터슨을 한국 법정에 서도록 하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와 검찰도 사건 해결을 위해 보다 성의있는 태도와 책임을 보여야 한다.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데에는 용의자를 잘못 기소한 것도 모자라 출국 금지요청을 제 때 하지 않아 범인이 도주하도록 한 검찰의 책임도 크다.

한미 양국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신속한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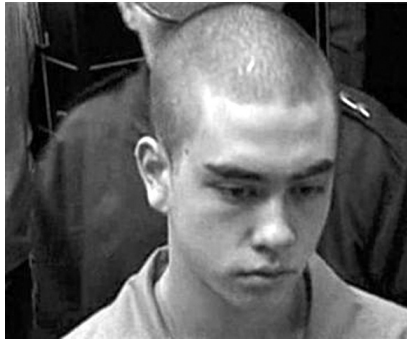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기소 후에야 범인의 신변을 인도받을 수 있어 초동수사와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데는 당시 관계자들 다수가 SOFA 대상자였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이들의 출석을 강제하지 못한 탓이 크다.

우리들의 사건 해결에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영원히 역사와 시간 속에 묻힐 뻔했던 한 청년의 죽음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데에는 영화의 힘이 컸다. 또한 이렇게 알려진 사건이 수년 만에 재수사에 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관객들과 관심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건 재수사라는 하나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이 영화와 이 영화를 둘러싼 일련의 일들은 우리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로 왜곡된 진실을 파헤치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꾸어 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직도 주한미군과 관련한 수많은 미제사건이 존재하고 지금도 주한미군에 의한 사건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인 사회 여러 사건들보다 그 시작자체가 불평등한 한미 관계에서 시작되어 사건 해결에 더욱 어려움을 갖는 주한미군에 의한 사건에 더욱 관심 필요하다. 

살해용의자 아더 패터슨



평화누리통일누리 110호를 읽고

인천평통사 평화분회

#1. 이번호의 가장 큰 특징으로 필진이 다양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띈 기사는 전북고속버스 노동자가 보낸 편지입니다.

이전 소식지에 실렸던 지역소식지 기사를 보고 답 편지를 보냈다니! 감동입니다.

지역소식을 소식지에 실는 것은 어찌 보면 작은 노력이지만 그 기사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네요. 108호 지역소식란에 실렸다는 내용을 솔직히 저희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분회로서 스스로를 반성하며 앞으로 지역 소식란도 더 꼼꼼히 챙기기로 하였습니다.

현안 1에서 '영리병원을 향한 정부와 집권여당의 무한한 도전'에서는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잘 담아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대학생,청년 평화 아카데미 참석한 학생들의 소감도 인상적이었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식지를 통해 많은 회원님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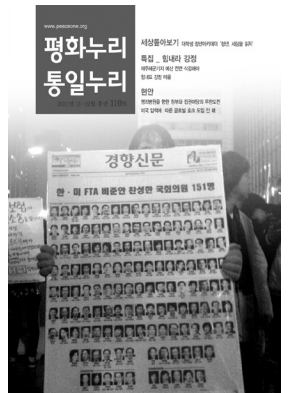
2. 우리가 제일 잘 나가 ~~

소식지 모니터링 1년을 정리하며 소식지를 담당하는 홍보팀장과 수다회를 열었습니다. 일명 '홍보팀장과 함께 하는 맛있는 수다' 라고..ㅋㅋ

소식지를 만드느라 홀로 분투하는 홍보팀장을 격려하고 미흡하나마 1년 동안 소식지 모니터링을 열심히 한 스스로를 자축하는 자리였지요.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면서 모니터링 기사 내기에 급급했던 것 같은데 모여서 소감을 나눠 보니 스스로 성장한 부분이 많았네요. 다들 평통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아 졌을 뿐 아니라 현안에 대한 지식이 깊어 졌답니다. 무엇보다 분회 활동이 안정되었구요.

우리는 내년에도 주-옥 소식지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소식지 내용을 다양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기로 했습니다. 홍보팀장이 회원 인터뷰 기사를 년 2회 실어달라는 원고 청탁을 저희가 받아들여 2012년에 하기로 했거든요.

우리는 사는 얘기도 하고.... 소식지 얘기도 하고... 분회 평가도 하면서 수다회를 맛있게 하였습니다. 



〈평화누리통일누리〉에 참여하세요~

사진이야기, 여행기,
모임 참가 후기,
영화평, 서평 등
생활글을 모집합니다.

마감 : 매월 15일

메일 : spark946@

hanmail.net

담당 : 홍보팀

(02-711-7292)



“ 망치와 나사못으로 와인 병 따다 -
우리 이런 사람들이예요~~”

통일신라 다음 나라는 조선?

김 진 환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1월 7일에 부산대학교에 다녀왔습니다. 부산진보캠프라는 행사 중에 ‘북한바로알기’를 강연주제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반가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통일은 왜 해야 합니까?” 최근 들어 ‘경제적 대차대조표’만을 놓고 통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얘기하는 것에 아쉬움이 많았던 터라, 고통, 상처, 적대감, 치유 같은 단어들을 가지고 요즘 해왔던 생각들을 나누고 왔습니다. 이처럼 최근 제 화두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 실리’를 중심에 두지 않고도 통일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다보니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이 화두와 연결 짓기 일쑤입니다. 1월 첫 주에 공주·부여로 가족여행을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제 또래, 그러니까 경주가 ‘국가대표 수학여행지’였던 시절 학창시절을 보낸 이들이라면 백제는 신라에 비해 여전히 낯설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 그 시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더 가까운(수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주·부여는 놔두고 경주로만 수학여행을 다녔는지는 아직도 명쾌하게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몇 가지 이유는 생각해둔 게 있습니다). 암튼 그동안의 홀대도 미안하고 삼국시대에 대한 ‘공정한’ 이해도 도모할 겸 마음먹고 ‘백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답사를 마무리하며 딸에게 여름에는 경주에 가자고 말해놓고 보니, 자칫하다간 백제, 신라 답사로 삼국시대 답사가 끝날 수도 있겠다는 데 생각이 미치더군요. 요즘 같은 남북관계가 계속된다면 올해 초등학생이 되는 제 딸이 ‘아직 부모 따라 여행 다닐’ 나이에 평양에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강서대묘, 대성산성, 안학궁, 동명왕릉 같은 고구려 유적의 보고(寶庫) 평양 말입니다.

좀 더 생각해보니 고려도 건너뛰게 생겼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단절되기 전인 2008년에 개성에 가서 고려성균관, 선죽교, 송양서원, 표충비, 관음사 같은 고려 유적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 한창 우리 역사에 빠져 있는 제 딸도 개성에 가서 직접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침 이 글을 쓰는 방 밖에서 아내와 딸이 고려시대를 다룬 역사책을 함께 보다가 선죽교의 빨간색 자국 얘기를 두런 두런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게 직접 보고 온 선죽교 이야기를 딸에게 해주라고 하기에 몇 마디 말은 해주었는데, 이 글을 빨리 써서 넘겨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때 찍어온 사진을 컴퓨터에서 찾아 보여주지 않은 게 영 마음에 걸립니다.

“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민족통일은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비극에서 희극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 우리 아이들이 흔쾌히 읽을 희망가득한 근현대사를 위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고려만 문제가 아닙니다. 궁예가 세운 태봉(후고구려)은 개성, 철원이 중심이었는데, 개성은 북쪽에 있어 가보지 못하고, 철원의 궁예성터는 군사분계선 부근, 지뢰밭 한 가운데 있으니 남쪽에 있어도 가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후고구려, 고려를 건너뛰면 자연스럽게 답사는 신라에서 조선으로 직행합니다. 우스갯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분단을 끝내지 못한다면 아마 후손들은 “신라, 백제가 싸우다 신라가 이겨서 민족통일을 했고, 신라 다음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했다가 일제 식민지배를 거쳐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책에서 아무리 고구려, 발해, 후고구려, 고려 같은 나라들이 있었고, 그 나라들의 문화가 오랜 시간을 거치며 현대 우리 민족의 문화로 스며들었다고 일러줘 봐야, 직접 두 다리로, 두 눈으로 역사의 현장을 보지 않는다면 모든 게 공허하게 들리겠지요.

한 가지 애깃거리가 더 있습니다. 백제 답사 마지막 날 공주 마곡사에 가까운 모자와 동행했는데, 제 딸보다 한 살 어린 그 집 아이가 “구한말 이후 한국사는 슬퍼서 구한말 이전까지만 재미있다”고 말한다는 얘기를 그 아이 엄마로부터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그 아이 말이 마음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일제 식민지배, 디아스포라, 분단, 전쟁, 예속, 독재로 이어진 근현대사는 그야말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의 연속이니까요. 딸과 함께 매서운 겨울바람 부는 ‘우금티’에 올랐을 때, 관군과 일본군이 ‘함께’ 동학혁명을 진압한 얘기를 들려줄 수밖에 없었던 현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까지 더한다면 정말이지 ‘우리 민족이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기에 이리도 한스럽게 살아야 하나’라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민족통일은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이 같은 비극에서 희극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혹한 동족상잔의 비극, 강제이산의 비극을 딛고, 어떤 외국의 도움이나 간섭 없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민족통일을 이룩해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통일민족국가는 다른 나라를 괴롭히지 않으며, 온 인류가 부러워하고 존경할만한 제도와 문화를 꽃피우기 시작했다”고 역사책에 적는 그 날, 구한말 이후 우리 민족이 겪어온 상처도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록 앞부분은 여전히 슬프지만, 뒷부분은 희망이 가득하니 이러한 근현대사라면 우리 아이들이 흔쾌히 읽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온전하고 즐거운 역사공부를 위해 통일합시다. 이게 제가 최근에 찾은, 통일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를 크게 슬퍼합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서거에 대하여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온 겨레와 세계 평화 애호 민중과 함께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또한 충격과 비탄에 빠져있을 유족과 북녘의 동포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로 나아가는 정세의 중대한 고비에서 갑자기 맞게 된 고인의 서거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쪽의 최고지도자와 함께 6·15, 10·4선언을 발표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의 이정표를 놓은 고인의 업적과 노고는 민족과 역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 정상선언의 주역들이 모두 고인이 된 이 시점에서, 온 겨레가 6·15, 10·4선언을 되살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루고,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통일로 굳세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1. 12. 2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 위 조의문은 통일부의 북한주민접촉승인 하에 6·15공동선언북측위원회에 보낸 평통사의 조의문입니다.>

평화의 대장정 -제주 강정마을

김희정 시인



임진각에서 목포를 거쳐 제주까지
우리는 걷는다
평화의 씨앗을 품고 걷고 또 걷는다
배낭에 담은 사연들을 온 몸으로 안고
제주도를 향해
평화의 섬을 향해, 강정으로 간다
칼바람도 불 것이다
매서운 눈보라도 일 것이다
뚫고 뚫고 뚫으며
1번 국도를 따라 평화의 길을 내며 갈 것이다
가는 곳마다 지역을 지키는 작가들을 만나
사랑을 이야기하고 문학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 하고 생명을 이야기할 것이다
서울과 경기도를 잇고 충청도를 이어
전라도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 길에서 우리는 작가정신을 새길 것이다
그 길에서 우리는 시대정신을 배울 것이다
그 길에서 우리는 평화를 확인할 것이다
그 길에서 우리는 생명을 노래할 것이다

강정아, 작가들이 간다
글만 쓰다 약해진 몸을 겨울로 달구며
서로가 하나가 되어 갈 것이다
길을 잇는다는 것은
생명의 길을 잇는 것이다
생명의 길은 평화의 길로 연결이 되어
언 땅을 녹이며
한 걸은 한 걸음
527킬로미터를 그렇게 걸어갈 것이다 

시인 김희정 님은 한국작가회의 대전지회 소속으로 한국작가회의가 주관한 '글발글발평화릴레이-임진각에서 강정까지' 행사에 적극 참여하신 분입니다. - 편집자 주

기행을 다녀온 후 며칠이 지난 지금, 반짝반짝 무수히 많은 별들이 하늘을 수놓은 감정의 밤하늘이 그립고, 구름을 뚫어 내는 듯한 락트인 한라산이 보고 싶고, 짝딱한 숲통을 트여주는 제주의 공기, 시원하고 맑은 바람, 때론 날아갈듯 거센 바람, 그리고 추운 겨울밤 외관 앞마당에서 다함께 씨앗을 모락모락불어주는 따뜻한 마을 주민들과 지킴이들, 손이 노랗게 저도록 열심히 까먹던 달디 단 꿀, 그리고 함께 뜻을 나눴던 기행단원들, 이 모든 것들과 다시 만나고 싶다...

글 : 조정현, 사진 : 조정현, 황혜령



점심을 먹으로 삼거리로 갔다. 거기서 종환 삼촌이라는 분이 점심을 제공해주셨다.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다! 삼거리에는 중덕이도 있었다. 그리고 중덕이에 비해 관심을 덜 받는 또다른 개 한 마리까지. 삼거리에는 펜스너머 구름비바위와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망루가 설치되어 있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올레길이 삼거리를 통과하고, 구름비바위로 나갈 수 있었는데 해군이 펜스를 세워버려서 더이상 구름비바위에 갈 수가 없게 되었다. 펜스를 넘어가면 벌금까지 물리는 상황이다. 펜스 곳곳에는 마을 주민들이 강정의 평화를 염원하는 그림들과 글들을 남겨놓았다. 우리가 삼거리에 갔을 때 송강호 박사가 아침 계서서 망루에 걸린 그림의 주인공인 박사님을 뵈 수 있었다. 삼거리 한쪽에서는 육지에서 올해 강정으로 내려온 공예작가 지킴이가 만든 공예품을 팔고 있었다.

강정천의 상류에 있는 냇길이소에 수풀을 헤집고 들어가서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하고 단체 사진도 찍었다. 조장 언니가 DSLR카메라를 나한테 맡겨줘서 사진찍는 재미도 있었다. 강정천의 끝, 거의 해변이라 볼 수 있는 곳에 갔을때,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 그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다. 제주도 특유의 현무암 바위틈을 밟고 올라가 탁트인 수평선을 바라봤다. 그때 강정바닷가의 바람은 아주 적당히 선선했다. 강정천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민물을 먹어보니 물맛도 시원했다. 다시 돌아가기가 아쉬웠다. 냇길이소에서 내려와 강정천으로 오는 길에 삼보 일배를 하시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삼베옷을 입으시고 절을 하시는데, 힘들어 보였다. 그리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강정천에서 올라올 때 쯤, 그 할아버지는 어딘지 모를 전환점을 돌고 다시 내려오고 계셨다. 한쪽에서는 1인 시위를 하시는 분이 서 계셨고, 그 뒤편은 공사장이었다. 강정천에 갔을 때 공사장에서 어떤 남자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다. 감시하는 것이리라.



미랑 언니는 여장군이다. 시위나 집회때마다 해군을 상대하는 힘이 장난 아니다. 한번은 뜻하지 않게 해군을 폭행(?)했던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재판에도 여러번 불려가고 벌금도 엄청 많다. 벌금문제는 미랑언니네 가족 뿐아니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관련되어 있다. 마을 주민들은 벌금형을 많이 받았고 전자자로 낙인 찍혔다. 여튼, 그래서 재판에서 판사들이 미랑 언니더러 '극렬한 시위자'로 칭했을 만큼 '극렬한' 인물이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별명이 '극렬미랑'이라고 한다. 언니는 이러한 일들이 모두 가슴이 시켜하는 일이라고 했다.

개인적으로 이번 기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마을탐방에서의 주민 인터뷰였고,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지는 제주 4.3평화공원이었다. 기행이 끝나고 공항에서 기행단원끼리 짙막한 소감을 나눴을 때 알게된 사실인데, 의외로 제주4.3사건을 이번 기행을 통해 처음 알게된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다. 평화공원을 견학하고 나니 더이상 이 제주도에 피의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강해졌다.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하고 자연과 우리의 후손이 파노라를 흘리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투항·투쟁의 역사를 지닌 제주도이니 어떠한 거친 외부세력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내다보인다.



조별로 마을탐방을 했다. 우리 조는 평통사 김종일 팀장님과 동글이 박성수 지킴이, 그리고 미랑 언니와 김성규 농부시인을 만났다. 그리고, 찬성측의 말도 들어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나들가게를 찾아가다. 나들가게 아저씨는 우리가 평통사란 사실을 모른 채(?) 열심히 설명해주셨다. 인터뷰를 하면서 얻은 것이 많다.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의 저자처럼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곳저곳 다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특히 동영상만 만드는 동글이 박성수님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그는 주로 환경 문제에 관한 활동을 하였다. 일년에 한국인 1인당 지구 2개를 소비하는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곧 후손들의 삶을 착취하는 것이다. 그가 전국을 다니면서 겪은 일을 얘기해 주었다. 몸 앞뒤로 환경 구호가 적힌 판넬을 매달고 서 있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진 일이 있었더라. 그 모습에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삶 자체가 획일화 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멋진 아내 예쁜 남편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것. 이것만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 그래서 다양한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존중이 없는 것이다. 그는 끊임없이 가치를 갱신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가치는 언제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시대적 상황과 흐름에 맞춰 가치를 새롭게 하고 그에 맞게 행해야 한다. 어떤 환경학자가 말하길, '인간의 뇌는 돼지의 코와 같아서 먹는 기관에 불과하다'고 했었다. 이 말이 꽤나 충격적이었다. 내가 혼자 배낭매고 전국을 돌면서 활동하면서 생활비같은 현실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였느냐고 질문했더니, 그가 나한테 했던 말이 잊히지 않는다. '학생이 참 용의주도 하네~'. 용의주도, 그래. 나의 그 용의주도함이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말 것이라는 불안감이 스쳤다. 생활비는 그때그때 각 마을에서 잠시 일을하면서 벌었다고 했다. 허기사 사람 사는 곳에서 굶어죽을리야 있을까...

대학생 청년 평화아카데미 참가자들과 제주도 강정마을 다녀와서

이 주 은 인천평통사

지난 11월에 있었던 제 1회 대학생 청년 평화아카데미 후속 사업으로 12월 15일에서 17일까지 제주평화기행을 다녀왔다. 평통사 사무실에서 사전 모임을 할때만 해도 어색했는데,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오래된 친구들처럼 수다를 떠다. 일행은 실무자 3명과 11명의 기행단원.

강정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바로 중덕삼거리로 향했다. 삼거리에는 해군이 쳐놓은 펜스를 대향해 망루가 세워져 있었고, 주민인 중환 삼촌이 지킴이를 비롯해 강정마을을 찾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시려 작은 간이식당을 마련해 놓으셨다. 거기에서 맛있는 김치찌개로 비행기 멀미와 허기를 달래고 유명한 전공 중덕이와 인사 후, 김종일 팀장님의 안내로 강정마을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처음 간 곳은 강정포구. 자유롭게 드나들던 구럼비 바위 부근이 온통 펜스로 둘러싸여 있었다. 구럼비 바위는 어르신들께는 어릴 때 먹거리와 놀이를 제공해주었고 아이들에게는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훌륭한 놀이터인데, 이제 온통 펜스로 막혀있어 그 끝인 강정포구에서만 볼 수 있게 되었다. 구럼비 해안가 대신 해군기지를 짓겠다고 쌓아놓은 삼밭이들을 볼 수 있었고, 그에 대항하는 아름다운 작품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해안가로 가는 길에 적혀있던 '해군은 장벽을 만들고 평화는 길을 만든다'라는 글귀가 정말 공감이 됐다. 펜스로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해군과, 올레길을 걷고 예전 그 길을 기억해 평화를 찾으려는 사람들. 한 주민분의 집 옥상에서 펜스 안 공사하려는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걸어갈때는 그냥 끝이 없다, 길다만 생각했는데 정말 넓은 해안가를 가로막고 있었다.

작년(2010)에도 둘러보며 신기하다고 느꼈던 강정천으로 향했다. 그 때는 폭포를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엔 하천만 보게 되었다. 천이 흘러서 바다로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도 볼 때마다 신기하고 멋진 모습이었다. 들으니, 이런 곳은 흔치 않다고 한다. 천이 직접 바다로 흘러 휴양지로서 매우 뛰어난 곳, 또한 자연보존가치가 높은 곳 바로 강정마을이었다.

우리는 곳곳에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삼보일배를 하시는 할아버지를 뵈 수 있었다. 이 추운 날 삼보일배라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시는 걸까. 정확히 세 걸음을 걷고 절을 하셨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었다. 내가 한다면 어떨까, 춥고 귀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아무 원망이나 분

범섬이 보이는 강정포구 방파제 끝에서..



18 · 평화누리 통일누리

노 없이 묵묵히 하시는 모습이 때론 슬프기도 하고 정말 대단해보였다.

숙소에서 맛있는 카레를 지어 먹고 촛불행사를 하러 의례회관으로 갔다. 농부이며 시인인 김성규 아저씨의 사회로 행사를 시작했다. 우리는 부랴부랴 준비한 '나는꿈수다'의 '울면안돼' 개사곡 '졸면안돼'를 부르며 울동을 시작했다. 처음에 어색했던 빨간 리본머리띠가 주민들에게 인기를 받았고, 어색했던 몸동작이 신명나는 호응과 맛 들어져 즐거운 공연이 되었다. 동작 중에 '빅엿을 안겨주신대'에서의 빅엿형상의 울동이 매우 인기였다. 마을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난 뒤, 우리는 다 같이 나가서 한바탕 신나게 춤을 추며 놀았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마을 분들이 다 같이 둥그런 원을 만들어 손을 잡고, 강강술래 대형으로 모여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다. 너무 놀라웠다. 아 이렇게 통쾌하고 시원한 춤이 있을까~ 너무 지치고 힘든 이 싸움에서 마을 주민들은 희망을 만들고 서로를 응원하는, 또한 스스로를 응원하는 공연을 하시는 거였다. 너무 신명나고 속이 뽕 뚫리는 시원한 경험이었다.

의례회관에서 행사를 마치고 우리는 최성희 선생님과 벤자민 활동가와 간담회를 하였다. 우리 주변에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얘기하였고, 멀리 외국에서 온 벤자민아저씨의 구럼비에 대한 마음, 그래서 강정마을에 남게 됐다는 얘기를 나누며 짧은 간담회를 마쳤다.

이튿날, 따뜻한 제주도에서 보기 힘들다는 눈을 보았다. 서울에서도 추웠지만 절끔절끔 내려 볼 수 없던 함박눈을 실컷 보고나니 산을 넘어 가야할 평화공원에 갈 수 없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 산을 넘는 길이 너무 위험했다. 계획했던 일정을 변경해 도착한 곳은 화순항이었다. 제주도의 따뜻한 날씨로 눈과 비 그 중간을 맞으며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20m 높이의(넓이도 그 정도 될) 케이슨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 케이슨을 바다에 쌓아 기지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런 엄청난 콘크리트를 쌓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환경오염이 시작된다고 한다. 기지를 반대했던 화순에는 이런 케이슨이 쌓여가고 강정마을에 기지를 만들려고 하고... 기지를 만들면 강정뿐만 아니라 근처 다른 마을까지 오염된다고 한다. 주민들을 넘어 민족의 먹거리, 일터까지 빼앗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기지건설. 이런 생각이 드니 케이슨이 너무 무지막지하고 잔인해 보였다.

화순항을 지나 땅굴을 둘러보고 첫알오름에 들렀다. 찍었던 사진들 중에 유일하게 다들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첫알오름 추모비와 백조일손지묘의 설명을 들을 때였다. 잘못된 과오를 댈기 위해 무고한 양민들을 예비검속이라는 미명아래 대량학살했고, 모실 조상은 많은데 그 자손이 정확히 누군지 몰라 함께 모시게 되어 생긴 백조일손지묘.

울 때마다 너무 화가나 눈시울이 젖어든다. 죽은 사람은 억울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부끄럽다는 4.3항쟁의 아픔 그 시작이 바로 이곳이라.

이곳을 지나 지금은 평화로운 발 격납고를 지나 평화의섬 공원을 들르게 되었다. 정말 여기 새겨진 글귀만큼 아시아 태평양

촛불집회에서 선보인 "졸면 안돼" 울동



2012년 1월호 · 19


을 넘어 온 세계가 평화로 연대하고 평화의 징검다리로 이어져야 하는데,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했다.

잘 둘러보고 우리는 세 조로 나누어 조 활동을 하였다. 그 이름은 바로 삼조(주은, 소영, 정현, 수진), 제일가람조(보라, 혜령, 가람), 재수조(성준, 예슬, 다은, 연일) 이렇게 나뉘어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마지막 공항에서 각자의 소감을 들었는데 대부분 이 시간이 좋았다고 한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다.(때때로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내가 어떤 것을 가치에 두고 살아갈 것이냐, 또한 그에 맞는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 날 나오는 길에 삼거리 앞에 있던 망루에 올라서봤다.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그렇지만 이 땅을 빼앗기는 주민들보다 두려울까.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득해져왔다.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정말 원 없이 굴을 먹었다. 고생한다고 아기들이라며 이쁘다고 이곳저곳에서 굴을 나눠주었다. 정말 달았다. 이렇게 속 정이 많으셨다.

주민분들은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고 제대로 항의도 못하시다가 얼마전부터 그 일에 당당히 얘기하시게 되었다고 한다. 살면서 누구한테 뭐라고 따질 일 한번 없으셨을 주민 분들. 마을 사람 서로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초등학교에서도 반에서 편을 갈라 싸우게 만드는 일. 이렇게 마을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진정 그들이 원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4.3항쟁의 아픔들이 되려 트라우마가 되어 분노를 갖고 있지만 그 분노마저도 포기해야했던 제주의 역사. 다시 상처를 주려는 기지전설. 이런 역사적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제주주민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일이기도 하다. 구럼비바위를 맨발로 밟을 수 있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나던 할머니가 방금 딴 굴이라며 마구 나눠 주신다~

현수막에 우리의 다짐을 쓰고, 강정마을에 걸었다



서울평통사

서울 평통사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평통사 송년회를 지난 12월 29일(목), 향린교회 향우실에서 열었습니다. 2011년 한 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에 애를 쓴 만큼, 1부는 강정마을을 생각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2부에서는 노동 비보이 김기용 회원의 멋진 춤과 노래에 이어 건국대 김진환 HK 연구교수의 정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품을 나눠드리는 순서도 있었는데, 당첨된 회원들께서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이날, 송년회에는 60여 회원들이 함께하셨습니다. 서울 평통사 회원 여러분~ 2011년, 모두 애쓰셨습니다. 2012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1년 12월 19일, 구로금천 평통사는 조종한(?) 송년회를 했습니다.



새해 첫 수요평화촛불



1월 4일(수), 저녁 6시 30분. 종각역 4번 출입구.

새해 첫 수요평화촛불입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무척이나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평화의 작은 행동은 날씨가 추워졌다고 멈출 수는 없겠지요. 이 날은 강정마을에서 여러 차례 만났던 태나 엄마와 조앤이 멋진 탈을 들고 나타나 신나는 율동을 선보이셨습니다. 

2012년 1월 6일. 첫 노동분회 모임 후 사무실에서 켜~한 뒤뜰이.



| 사무국장 황 윤 미

부천평통사

12월은 너무 정신이 없었 것 같아

일치감치 11월 말에 송년회를 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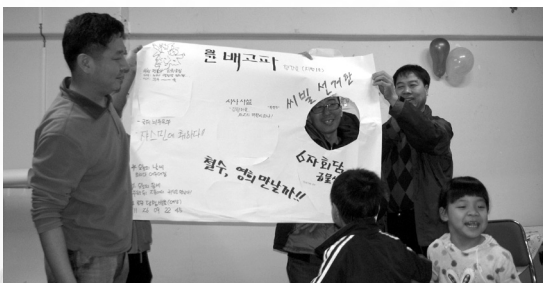
정성스럽게 준비한 맛있는 음식과 더불어 한해를 돌아보는 재미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네요. 조별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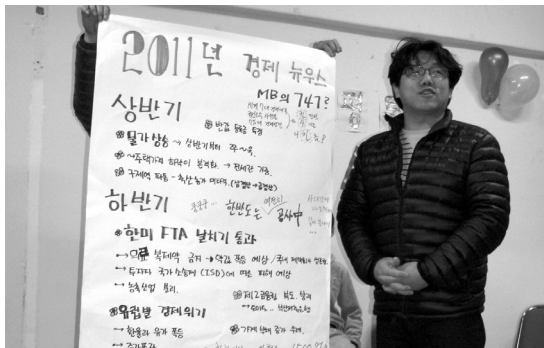
1조는 2011년 한해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들이랍니다. 노출 드레스 대신 푸른작업복, 강호동의 세금 포탈, 서태지 유부남이었다. 등등



2조는 올해의 톱 뉴스? 가 주제였죠, 스티브 잡스 사망, 강정 해군기지, 한진, 한미FTA 첫발[김어가는 식민지]라는 내용들.. 발표를 하는 이현주 회원은 3월에 결혼을 한답니다. 축하 축하!!



3조의 '일간 배고파' 신문~ 사람들도 다 배고파 보이죠? ㅋㅋ 이조는 뉴스 제목만 신문으로 만들고 사람이 직접 나와 앵커 역할을 하여 회원들에게 신선함과 많은 웃음을 주었습니다.



4조, 2011년 경제뉴스~~

제일 신문다웠던(?) 조라고나 할까요. 충실하게 올 한해 경제뉴스 내용을 담았네요.


성탄절에도 FTA 날치기 완전 무료!



한미FTA를 날치기한 대단한 똘나라당의 행위가 많은 국민들이 추운 날에도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미련한건가요? 누구 말대로 김어가는 식민지의 시름소리가 들리는 듯 하네요..

쌍차 희망텐트



한진의 희망버스에 이어 이 혹독한 추위에 쌍차 동지들이 희망텐트를 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힘을 보내고 있습니다. 

| 공동대표 주 정 숙

인천평통사

2011년 가족 송년회



아쉬웠던 2011년, 회원들과 함께 '가족 송년회'를 인천평통사 사무실에서 함께 했습니다. 2011년 인천평통사의 '이러쿵 저러쿵' 역시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열심히 했던 활동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동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쁘~죠?(^^)



최근 신입회원으로 가입하신 동구 노점상 연합 류예곤 회원과 남편이 예쁜 사슴뿔과 산타모자를 쓰고 찰칵^^ (왼쪽)
"평통사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곳"이라고 말씀하신 이정옥 회원님의 감직한(?) 포즈^^ (오른쪽)



조병규 회원과 송년회 자리에서 신입회원으로 가입하신 부인 심옥빈 회원의 다정한 모습. 귀엽조?(?) (왼쪽)
늘 바쁜 일정으로 시간을 쪼개서 생활하시는 허필자 회원님. 올해는 짬을 내서 평통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

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른쪽)




'손병호게임'으로 벌칙 걸린 회원들이 나꼼수의 '캐롤송' 율동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우 님은(가운데) 이날 회원으로 가입하셨고요, 홍다은(오른쪽 맨 끝) 회원은 이번에 대학 새내기 랍니다.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주신 이은순 회원님께 회원들의 감사글이 담긴 액자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매년 행사때 마다 고생해 주신 이은순 회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함께 건배를! 평화와 통일을 향해 한발 다가서는 2012을 위해 

| 교육부장 김 강 연



2012 인천평통사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알립니다]

신입회원 : 심옥빈, 이재우, 김지훈, 신현광님 환영합니다.

2012년 10차 정기총회 : 2월 4일(토) 오후 7시, 부평1동 성당 지하식당

대전충남평통사

글발글발 강정 평화 걷기



한국 작가회의의 글발글발 강정 평화 걷기에 동참하였습니다. 임진각에서 제주 강정까지 몸과 마음을 다해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외쳐봅니다.

1월 4일은 눈보라가 몰아치고 차가운 바람에 정말 험난했습니다. 하루 걷는 거

리는 대략 25km 평소에 운동도 안하고 그래도 걷는 것이니 얼마나 힘들겠어..라는 자만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1월 5일은 날씨도 좋고 바람도 없어 참으로 걷기에 좋았습니다.

중간에 논산계룡평통사 변혜숙 회원이 준비한 떡국으로 맛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만복이네 아이들의 강정 몸짓을 보았습니다. 정말 힘이나고 즐거운 평화걷기였습니다.

통합진보당 대전시당 창당대회



1월 6일 금요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통합진보당 대전시당 창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진보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음과 마음을 모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창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로비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정평화지킴이 복희씨가 함께하여 캐리커처를 그리며 강정을 알렸습니다.. 단연 캐리커처가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강정 관련 책도 팔고 강정 목거리 등 물품도 판매하고.. 조금이나마 강정을 알리는 계기였습니다. 향후 강정캠페인에 복희씨와 함께 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계룡평통사 신년회

대전충남평통사 지역으로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하게 논산계룡평통사 신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열기를 가득 담듯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평통사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현재 논산계룡평통사는 다음카페(다음에서 계룡논산평통사 검색)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카페에 글을 남기기, 그리고 매달 둘째 목요일 정기모임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새책시 이미옥 회원의 활약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산계룡평통사의 2012년 첫출발이 대전충남평통사의 희망입니다.


서산, 홍성을 다녀와서..



2012년을 맞이하여 서산, 홍성 회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서산은 2월 초 첫 모임을 시작으로 새로운 마음과 서산평통사 활성화를 위한 각오를 다지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2년 첫 회원가입은 서산에 이루어졌습니다.

홍성은 홍성평통사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2월초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평통사에 대한 중심성을 높이고..그러기 위한 내용과 실천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첫 만남이 참으로 의미 있었고, 2012년 올 한해 평화와 통일의 길이 조금 더 밝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 사무국장 장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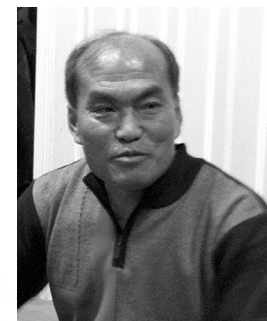
파주평통사(준)

파주평통사 송년회



파주평통사(준)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회원들은 2011년 열심히 하지 못한 미안함과 함께 무건리 훈련장 문제를 꾸준히 알러나가기 위해 정기적 캠페인을 진행하자는 결의도 모았습니다. 이런 취지로 박석진 국장님이 무건리 훈련장 문제와 우리의 과제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파주평통사 주병준 회원이 크게 다치셨어요




무건리 훈련장 확장반대 주병준 위원장님이 농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가스 폭발로 골절과 화상을 입으셔서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최소 두달 이상 입원해 계셔야 합니다. 올해엔 선거도 있고 하니, 무

건리훈련장 확장 저지투쟁에 더 힘써보시자며 결의를 다지 시곤 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셔서 상심도 크셨답니다.

파주평통사 회원들을 비롯한 전국 평통사에서는 심시일 반 병원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은행 1002-588-004005 김일회〉

문의 : 김원식 파주 준비위원장 010-4817-8714 

| 인천 사무국장 유정섭

군산평통사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강정투쟁 참가

지난 12월 3~4일 김연태, 문성주, 김판태 회원은 강정마을에서 열린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제6차 전국시민행동에 참가했습니다. 3일 아침 7시 익산평통사 회원들과 함께 승용차로 군산에서 목포여객터미널로 이동하여 광주전남평통사 회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제주로 갔습니다. 목포항에서 제주항까지 3시간 30분이나 걸리지만 배위에서 회원들과 막걸리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니 어느새 제주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주항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강정마을에 도착하여 강정천과 의례회관, 중덕삼거리와 코사마트 사거리에서 열리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참여행사 등 사전행사와 촛불행사에 참가했습니다. 5백 여 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강동군 마을회장 등 구속된 분들이 나온 뒤 처음 열리는 전국 집중행사로 강정투쟁의 열기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촛불집회 후에는 평통사 회원 60여명이 참가하여 강정투쟁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교양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음날 오전에는 천제연 폭포를 비롯하여 중문관광단지 주변을 관광하며 막간의 여유를 갖기도 했습니다.

한미FTA 비준 저지 투쟁, 지속적으로 전개

지난 10월 19일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FTA 반대 군산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일인시위, 선전전, 촛불집회 등 FTA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구 보건소 사거리 김스마트 앞.

처음에는 단체회원들 중심으로 참가하다가 일반시민들이나 가족들과 학생들도 조금씩 참가하는 등 참가자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12월 중순 이후 민주통합당과 진보통합당 등 정치권이 예산심의를 핑계 삼아 원내외투쟁으로 전환한 이후 전국적으로 FTA투쟁 열기가 점차 식어가고 있고 전주 등 전북의 타지역에서 12월 말로 촛불집회를 중단


하기로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군산촛불집회에는 평균 30~40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12.28 연석회의는 FTA투쟁과 반MB투쟁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19까지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군산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개최



지난 1월 5일 나운동 중화요리 전문점 정선에서 군산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가 열려 2012년 연대와 소통, 민주진보적 정권교체에 대한 서로의 소망을 나눴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군산평통사 등 지역의 18개 단체 6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2011년 군산시민단체 활동 둘러보기 사진 슬라이드, 서동완 시의원의 색소폰 연주, 단체별 소개와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신년하례회에서 나눈 올해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군산 미군기지 1월 집회 개최

1월 11일 15명 정도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올해 첫 미군기지 집회에서는 미국의 신국방전략에 따른 한국의 방위비 증가, 군산기지 기지건설공사 예상, 전투기 소음 등 군산기지 투쟁의 대중화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 사무국장 김 판 태

익산평통사



2011. 10. 29(토) 새벽에 선배님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하여 제주 시청 앞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집회를 하시고 강정 포구에서 해군기지 불법 공사장을 바라보면서 하루 빨리 해군기지 전면 중단을 촉구 하면서.....



2011. 11. 10(목) 오후 7시 전병생 상임대표님과 문영만 공동대표님 등과 영천교회 "샘카페"에서 운영위원회를 하였습니다.




2011.11. 28(월) 오후 5시 30분 영천교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실패한 미래?"라는 주제로 이해영 교수 초청강연회를 하였습니다. 익산 시민들과 목사님들이 70여명 참석했습니다. 강연회를 마치고 뒷풀이 자리에서 촛불 문화제를 하기로 결의 하셨습니다.



2011.12.3(토) 강정마을 평화행사에 참여한 전미영 회원이 노란빛 딸고 범섬을 바라다 보이는 아름다운 구럼비 바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구럼비 바위가 보전되길 바라면서 송강호 박사님 대구 이종화 회원, 익산 김대송 사무국장 등과 같이 카약을 타고, 해상 시위에도 참가하였습니다.



2011. 12. 6(화) 오후 6시, 1차 촛불문화제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강연회를 통하여 익산 시민 단체들과 2차에서 부터는 매주 목요일 마다 오후 6시 무왕로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6차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무국장 김 대 승

전주평통사

전북 축산 농민, 한미 약탈 조약의 직격탄을 맞다.




연말연초, 기막힌 소식이 가슴을 울린다. 우리사회 가장 약한 고리, 농민들이 한미 FTA의 직격탄을 맞았다. 전북 순창에서 수십 마리의 소가 굶어죽었다. 정부 당국의 첫 반응은 동물학대죄를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동물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치욕스런 불평등 조약 체결로 국민을 학대하고 서민, 농민을 학대한 대역무도 죄는 어찌할 것인가? 육우 송아지 값이 1만원으로 추락한 현실에서 축산농민들이 떨쳐 일어났다.

2012년 1월 5일(목), 전국 축산 농민들이 1,000마리에 이르는 소를 끌고 와서 청와대에 전해주고 어디 한번 잘 키워서 소득을 창출해보라는 시위를 하고자 했다. 이날 아침 전북에서도 400~500마리의 소가 서울길 가고자 고속도로 나들목으로 운집했다. 경찰은 고속도로로 향하는 길목을 몇 겹으로 철통 같이 에워쌌다. 소를 싣고 붉은 깃발 꽃은 채 진입하는 농민 차가 떴다하면 병정들이 즉각 달려들어서 차머리를 돌려세웠다. 여기가 어디인가? 적어도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 나라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통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허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지구상에 없다. 이처럼 축산농민들의 처연한 부르짖음을 간단히 틀어막은 정부는 기상천외한 대책을 내놓고 말았다. 바로 송아지 요리를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가가의 머리는 어찌 이다지도 영특한가!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다. 흉악한 내외 매판 세력들이 숨통을 조여와도, 평균 나이 60이 넘는 농민들은 이미 위력 있게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자주, 평화, 통일 세상을 열망하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다짐과 믿음으로 종만했던 2012신년회!!!



1월 9일(월) 문규현 신부님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카페 '그래도 희망입니다'에서 2012 신년 모임을 가졌다. 유영석, 양원진, 이석영, 황민주, 최재훈, 박상희, 황성환, 홍성표, 박병식, 김도곤, 권동용, 김여진, 이재호, 문규현, 최정옥님들!!! 장기수 선생님들, 퇴직 교수님과 현직 교수님들, 목회자 분들, 상담 전문가, 사업 경영자 각계 각층이 자주, 통일을 향한 올곧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자리. 장기수 선생님 한 분은 비정규직, 곧 파르티잔 투쟁에 한 몸을 던지셨고, 다른 장기수 선생님은 정규군 장교로 전쟁기간 최전선에 서신 전사이시다. 두 분 다 30년에 이르는 감옥생활을 하셨고 84, 5세에 이르는 연세이신데, 혼인을 하지 않으셨다. 한번뿐인 인생을 역사에 아낌없이, 오롯이 바치신 것이다. <제국의 몰락과 후국의 미래> 저자인 황성환 선생님께서 짧은 시간 동안 순도와 밀도가 매우 높은 열강을 해 주셨다. 아메리카의 실체가 뭐고 팩스 아메리카나는 어떤 운명을 맞고 있는지... 한해의 다짐과 목표 시간에는 진솔한 삶의 고백이 이루어졌다. 전주 명품 쌀막걸리 천둥소리 전문 술집 '웅심이'에서 이루어진 뒤풀이도 훈훈하고 따뜻했다. 무엇보다도 동지同志의 마음을 갈라놓는 보이지 않는 장벽, 유리벽을 깨뜨리고자 담금질을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 사무국장 이 재 호

[알립니다]

신입회원 : 이섭목사(예벳교회), 병식목사(큰나무교회)
새로 나오신 분 : 홍성표 목사
제4기 정기총회 : 2. 20(월) 18:30

광주전남평통사

2차 평화서당을 진행했습니다.



2011년 12월 11일 2차 평화서당을 진행하였습니다. 2011년 광주전남 평통사 운영위원들과 주요 활동 회원들의 통일성 강화를 위해서 4차례의 평화서당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정 투쟁 등 일정에 밀려, 두 차례 진행을 하였습니다. 8월 강정구 교수님을 <해방 60년 한미 관계의 변화>에 이어 12월 박석분 회원사업팀장을 초청 <2012년 정세전망과 한반도 평화협정 운동 현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광주, 무안, 순천, 광양, 고흥, 화순, 나주, 강진 등지에서 3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열띤 교육을 가졌습니다. 교육에 나선 박석분 팀장은 현정세와 한반도 평화협정 전망 로드맵에 대해 설명을 진지하고, 쉽게 설명을 해 준 교육이었습니다.

강정 해동이 행사에 참여 했습니다.

2011년 마지막 날 2012년 새해 벽두 광주, 무안, 진도, 해남지역의 회원, 가족 27명이 강정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2012년 떠오르는 해를 보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조직의 발전과 가족의 건강, 2012년 양대 선거 승리를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12월 31일 추운 날씨에도 주민들과 함께 강정 포구에서 송년 문화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참가한 회원, 가족들과 뒤풀이를 하면서 2012년 소망과 계획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1월 1일 흐린 날씨로 해돋이는 못 봤지만, 강정포구에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새해의 희망을 기원하였습니다. 전남으로 돌아올 때는 날씨가 너무 안좋아 배안에서 엄청 고생들도 했습니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광주전남평 통사 운영위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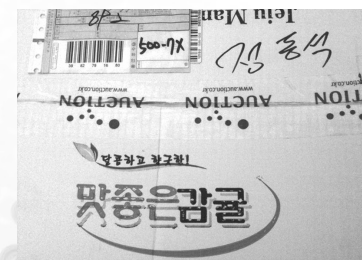
1월 5일 광주전남 평통사 운영위원회를 진행, 총회와 관련한 주요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회의에서 김병균 상임대표님과 서창호 공동대표님과 그리고 각 지역 대표님들의 새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건과 관련해서 광주전남 평통사 7차 운영위원 총회를 2월 5일(일) 18시 무진교회 교육실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회에 제출할 임원 인선안과 운영위원 총회 성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토) 진행할 평통사 운영위원 총회를 확인하고 각 지역 평통사 총회를 3월 중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역 2~3지역에서 지역 평통사 결성을 결의 하였습니다. 

| 사무국장 정 동 석



강정마을에서 광주전남평통사로 맛있는 귤을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비와 후원금 (11,12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회비와 후원금 (11,12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중앙

[11월 대표/임원회비] 강경구 고영대 권정호 김성운 김창환 문규현 박용일 배종열 변연식 윤팔병 이일영 장경옥 정혜열 홍창의

[11월 특별회비] 윤팔병

[11월 후원회비] 강영태 고건일 권형우 김동완 김명래 김성순(2회) 김영철 (2회) 김용순 김점수 김준기(2회) 김준철 김형배 류미아 문영진 박정래 박춘원 서경숙 심관식 오민주 오주연 유광수 유영섭 윤치호 이성호 이우영 이은혜 이창우 임순래 장성주 정화선 황완 황재선

[11월 후원금] 강남교회 새김교회 통일광장 푸른마음교회 향린교회 향린교 회청년남신교회 권현영 박순성 그레이스 리

[11월 제주지역 회원] 고건일 양윤모 양윤호

[12월 대표/임원회비] 강경구 권정호 김창환 문홍주 박용일 배종열 변연식 윤팔병 이일영 장경옥 정혜열 홍창의

[12월 특별회비] 이남진 이일영

[12월 후원회비] 강영태 권형우 김동완 김명래 김성순 김영철 김용순 김점수 김준기 김준철 김형배 류미아 문영진 박정래 박춘원 서경숙 심관식 오주연 유광수 유영섭 윤치호 이성호 이우영 이은혜 이창우 임순래 장성주 정화선 황 완 황재선

[12월 후원금] 강남교회 새김교회 예배공동체예수 통일광장 푸른마음교회 향린교회 향린교회청년남신교회 향린여신교회 향린청년남신교회 이진숙 박경애 양동일

서울평통사

[11월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애란 강양원 강영옥 강유겸 고경심 고순계 고예정 고이지선 공동길 구수영 권영무 권처홍 권혁문 기동서 김각영 김경자 김규태 김기수 김동훈 김두산 김명일 김문영 김미영 김민이 김보경 김상중 김석민 김선희 김성연 김슬기 김승현 김연옥 김영진 김영진 김유석(2개월) 김은미(2개월) 김은아 김일수 김재원 김정순 김정자 김종일 김종일 김중환 김지수 김진환 김창옥 김충래 김한성 김향연 김현애 김현진 김혜숙 김화수 김화순 김후중 김희국 김희영 김희현 나영훈 나현대 나혜영 남미영 노은아 류시자 박정철(2개월) 박경태 박명숙 박봉자 박상철 박상호 박석분 박신자 박승환 박은봉 박정수 박정자 박정훈 박종권 박종양 박찬주 박철현 박후임 박희성 박희정 방만식(2개월) 배유미 서동빈 서보혁 서정호 서창식 서황석 선소진 선순단 손영래 손우정 손윤희 손은정 송금심 송영자 순상환 신영철 신재훈 안건모 안병선 안병순 안일룡 양순주 여혜숙 연선민 오미정 오행진 오현실 오혜경 우미정(2개월) 원영진 원웅호 위보라 유영재 유영철 유효상 윤민재 윤영진 윤재승(2개월) 윤정원 윤호상 이경식 이경아 이경희 이광숙 이광종 이남현 이덕희 이병용 이병일 이상근 이상기(이경은) 이상희 (2개월) 이선옥 이선재 이성형 이소영 이수철 이순혁 이승규 이승무 이승민 이영옥 이운 이윤영 이은영 이종남 이종수 이창호 이해삼 이현숙 이현준 이해영 이해영 이해진,박승렬 임동원 임보라 임승현 임장혁 임태환 장남희 장성식 장숙이 장희수 정귀남 정동희 정미교 정상현 정선영 정애경 정은선 정준영 정지성 조영희 조창현 조현우 지안나 지은정 진태준 최대욱 최미화 (2개월) 최성민 최성희 최영옥 최보애 한기황 한문덕 한상근 한상옥 한준현 한호식 함재규 허정섭 허현중 현동식 형복순 홍문수 홍봉현 홍승환 홍영의 홍인덕 황규금 황 선 황윤미 황호정

* 후원금 감사합니다. : 여성분회 노동들

[12월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고경심 강애란 강양원 강영옥 강유겸 고순계 고예정(2개월) 고이지선 공동길 구수영 권영무 권처홍 권혁문 기동서 김경자 김규태 김균열 김기수 김동훈 김두산 김명일 김문영 김미영 김민이 김보경 김상중 김석민 김선희 김슬기 김승현 김연옥 김영리(2개월) 김영진 김영진 김유석 김은미(2개월) 김은아 김일수 김재원 김정순 김정자 김종일 김중환 김지수 김진환 김창옥 김충래 김한성 김향연 김현애 김현진 김혜숙 김화수 (2개월) 김화순 김후중 김희국 김희영 김희현 나승길 나영훈 나현대 나혜영 남미영 노은아 류시자 박정철 박경태 박명숙 박상철 박상호 박석분 박신자

박승환 박우석(1년) 박은봉 박정수 박정자 박종권 박종기 박종양 박찬주 박철현 박후임 박희성 박희정 방만식 배유미(2개월) 서동빈 서보혁 서영석 (2개월) 서정호 서창식 서황석 선소진 선순단 손영래 손우정 손윤희 손은정 송금심 송영자 순상환 신영철 신재훈 안건모 안병선 안병순 안일룡 양계탁 양순주 여혜숙 연선민 오미정 오행진 오현실 오혜경 우미정 원영진 원웅호 위보라 유영재 유영철 유효상 윤영수 윤영일(2개월) 윤영진 윤재승 윤정원 윤호상 이경식 이경아 이경옥 이경희 이광숙 이광종 이남현 이덕희 이병용 이병일 이상근 이상기(이경은) 이상희 이선옥 이선재 이성형 이소영 이수철 이순혁 이승규 이승무 이승민 이영옥 이운 이은영 이종남 이종민 이종수 이창호 이해삼 이현숙 이현준 이해영 이해진,박승렬 임민지, 김중완(2개월) 임동원 임보라 임승현(2개월) 임장혁 임태환 장남희 장성식 장숙이 장희수 정귀남 정동희 정미교 정상현 정선영 정애경 정은선 정준영 정지성 조영희 조창현 조현우 지안나 지은정 진태준 최대욱 최미화 최성민(들샘교회) 최성학 최정옥 하보애 한기황 한문덕 한상근 한상옥 한준현 한호식 함재규 허정섭 허현중 현동식 형복순 홍문수 홍봉현 홍승환 홍인덕 황규금 황 선 황윤미 황호정

* 후원금 감사합니다. : 강경구 최명수 박용일 박봉자

부산평통사

[12월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신광 강용환 강혜선 공경미 박노홍 구자춘 구현모 권혜숙 김난희 김덕근 김덕희 김성근 김성용 김성훈 김숙희 김숙희 김유민 김인영 김정은 김정호 김종태 김주영 김지숙 김진숙 김현숙 김호진 나종관 노은하 준 김성근 양난영 김현숙 손종옥 박숙경 최혜정 이숙주 전 윤미 강용환 신장호 박병준 장동환 황영신 황영희 이숙진 박노홍 홍혜숙 서경숙 김성훈 백창식 김숙희 주명숙 서혜숙 홍진표 이옥희 이리나 김인영 김주영 권혜숙 강혜선 김덕근 이상수 이영재 조영선 윤영근 노은하 문은정 민경신 민정래 박경민 박병준 박석진 박성준 박숙경 박영민 박인호 배영미 백창석 서경숙 서혜숙 석희정 성명수 소우영 손종옥 송봉훈 신선정 신장호 심영섭 심영오 양난영 유승우 유정엽 윤영근 이광희 이리나 이병훈 이보영 이상수 이숙주 이숙진 이영아 이영재 이옥화 이종주 이준훈 이현주 임재경 임현순 장동환 장미숙 장인옥 장혜영 전윤미 정승현 정용진 정인조 조기대 조미옥 조민우 조영선 주명숙 주옥현 주정숙 주호현 지은희 지태봉 차복래 최경순 최정규 최혜정 허민영 현지환 홍갑표 홍진표 홍혜숙 황영신 황영희

인천평통사

[11월 회원회비] 고상주 고영남 박준경 구완모 권창식 김갑봉 김갑중 김강연 김대영 김병규 김문경 김미양 김민서 김백수 김병철 김보희 김석중 김선미 김오섭 김은영 김익균 김일희 김정녀 김종선 김주숙 김중환 김창수 김태영 김형진 김호영 김희경 남익현 두현진 문한나 박광선 박병석 박순길 박승문 박승주 박완섭(연회비) 박유순 박인호 박창훈 서경석 서경혜 서영선 서재경 서재훈 서화조 석원희 손선재 송영주 송재철 송정모 신동훈 신창선 신필녀 안영봉 안용국 여영식 오수정 오현곤 오혜란 원용한 유근식 유원희 유정섭 유한경 윤성탁 윤인중 윤화심 이남희 이부섭 이무용 이범철 이상준 이성은 이세규 이승희 이용근 이용수 이은순 이은직 이용하 이재병 이재운 이재형 이정옥 이재학 이종훈 이주는 이준걸 이진실 이천직 이충각 이춘식 이현구 이홍만 인수범 임재훈 임희호 장동훈 전현규 정동민 정서진 정승호 정유성 정재훈 정찬식 정현숙 정형서 조남순 조상혜 조승현 조인휘 조태욱 주병준 진재환 차광호 최성묵 최 영 최영준 최장수 최창욱 최현호 추영호 한상옥 한상현 한연숙 한영순 한정복 한준현 홍 중 홍학기

[11월 후원회비] 강계순 강숙현 강영구 강원희 고숙희 김경순 김금옥 김대인 김동운 김명숙 김명중 김상기 김소희 김연중 김영호 김경태 김종은 김준태 김준한 김지수 김지은 김태현 김현주 김희숙 명은실 문경근 문병호 문선희 박미정 박순덕 박순희 박영민 박혜숙 박현숙 백은정 부평1동성당 서덕용 소병옥 송경평 송금화 송한석 신윤례 신정순 안덕자 안용원 오석근 오성기 오종춘 오창근 오혜영 우수홍 유재원 유정희 유한성 유현섭 윤성우 이경호

이대준 이덕규 이미경 이병란 이성희 이승미 이승옥 이승선 이옥희 이용근 이은희 이재규 이진범 이종일 이형진 이혜경 이혜정 이화진 임경희 임동렬 임병구 전영우 정동근 정명탁 정윤엽 정지상 정희진 조두환 조영정 조은진 로사리아 조태영 조현숙 지역과함께하는사제모임 최웅 최은선 최정옥 최현숙 하태준 허필자 황선하

[12월 회원회비] 고상주 고영남 박준경 구완모 권창식 권태형 김갑봉 김갑중 김강연 김경옥 김대영 김병규 김문경 김민서 김백수 김병철 김보희 김석중 김선미 김오섭 김익균 김일희 김정녀 김종선 김주숙 김중환 김창수 김형진 김호영 김희경 남익현 문한나 민선숙 박광선 박병석 박순길 박승문 박승주 박유순 박인호 박창훈 서경석 서경혜 서영선 서재훈 서화조 석원희 손선재 송재철 송정로 신나영 신동훈 신창선 신창선 신필녀 안영봉 안용국 여영식 오수정 오현곤 오혜란 원용한 유원희 유정섭 유한경 윤성탁 윤인중 윤화심 이남희 이부섭 이무용 이범철 이상준 이성은 이승희 이용근 이용수 이은순 이은직 이용하 이재병 이재운 이재형 이정옥 이재학 이종훈 이주는 이준걸 이진실 이천직 이충각 이춘식 이현구 이희환 인수범 임재훈 장광수 장동훈 전현규 정동민 정서진 정승호 정유성 정재훈 정찬식 정현숙 정형서 조경숙 조남순 조병규 조상혜 조승현 조인휘 조태욱 주병준 진재환 차광호 최성묵 최 영 최영준 최장수 최창욱 최현호 추영호 한상옥 한상현 한연숙 한영순 한정복 한준현 홍 중 홍학기

[12월 후원회비] 강계순 강숙현 강영구 강원희 고숙희 김경순 김기수 김대인 김명숙 김명중 김미경 김상기 김소희 김영호 김경태 김종은 김준태 김준한 김지수 김지훈 김태정(연회비) 김태현 김현주 김희숙 노경희 명은실 문경근 문병호 문선희 박미정 박병화 박순덕 박순희 박영민 박진우 박현숙 박혜숙 백은정 부평1동성당 서덕용 송경평 송금화 송한석 신정순 심이섭 안덕자 안용원 오석근 오성기 오종춘 오창근 오혜영 유재원 유정희 유한성 유한진 유현섭 윤성우 이대준 이덕규 이미경 이미영 이병란 이성희 이승미 이승천 이옥희 이용근 이은희 이진범 이종일 이형진 이혜경 이혜정 이화진 임경희 임동렬 임병구 장귀숙 전영우 정동근 정명탁 정윤엽 정희진 조두환 조영정 조은진로사리아 조재호 조태영 조현숙 지역과함께하는사제모임 최 웅 최원식 최은선 최정옥 최현숙 하태준 허문애 황선하

경기남부평통사

[11월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상욱 강지에 구영자 김상용 김창환 김택균 민영란 손영인 신상철 신종원 오영미 윤귀성 이근량 이수용 이양진 이우곤 이은우 이재영 이진희 이창근 장창원 정인교 조재길 채한식 추영배 한은숙 홍성조 황명선 황계순

[12월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상원 권오일 권혁배 김기덕 김민수 김주성 문종식 손영인 이상진 이승윤 이재영 이창근 장태곤 홍성조

대전충남평통사

[12월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고광석 구분중 구영본 권선필 권승현 권영훈 길병민 김경구 김경숙 김기수 김기현 김도식 김미연 김미옥 김상중 김영석 김영숙 김용일 김정호 김종성 김지수 김현식 김홍업 김홍수 나백주 노청래 노홍일 류기형 문양로 박영철 박기진 박혜경 박희인 변지숙 변혜숙 서기순 서영란 서영희 손용감 손정희 송관옥 송기는 송신근 송원진 송인준 신성원 신주희 신현정 신효철 신진호 안학수 양성호 엄창나 오광영 오명세 오무광 오수철 오순자 오은아 원용철 원웅호 유성호 유영민 유요열 유윤우 유장환 유종철 윤병민 윤상렬 윤혜경 윤효진 이건용 이경아 이광원 이병영 이성휘 이세준 이순옥 이승철 이영주 이요한 이용우 이재우 이정학 이종명 이종현 이지연 이진규 이찬구 이춘자 이현호 이화자 임인수 임재현 장도정 장명진 장인백 전순옥 전은경 정보영 정선진 정창식 정태순 정희태 조동준 조병현 조봉현 조성미 조영주 조재천 조주형 최영민 최정임 한상원 한연환 한용세 함필주 허민정

군산평통사

[12월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정식 고차원 김경수 김기수 김도걸 김동준 김미주 김성수 김성태 김성훈 김신중 김연태 김오수 김인수 김준근 김진환 김판태 김효성 노경두 노승민 라귀인 문성주 문영용 문정숙 박미라 박영배 박영희 박종수 박종대 서경희 서동완 서창조 선진숙 손영훈 송상구 신수철 양수철 양은희 엄미숙 오금수 오병철 유승기 유재임 유하영 위양자 이계택 이민우 이봉호 이상호 이종인 이현주 임보영 임춘희 임훈영 장미애 전해숙 정건희 정동훈 정 란 정 민 정옥진 정창환 조규춘 조성옥 조재용 조판철 채영호 최강문 최대준 최소영 최영목 최용진 최이화 최재식 하운기 한성자 황현정 황두만 홍지창

익산평통사

[11월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익현 김대승 김동우 김명근 김미경 김아름 김유순 김종혁 김주훈 김현숙 김희진 문영만 박두식 박영천 박용호 박은경 방용승 송동한 송재기 송 철 안경숙 양재식 오기주 오동선 오인빈 유희탁 이병식 이성교 이용숙 이용신 이윤성 이장우 이종구 이진규 전병생 전효일 전호정 정소영 정운순 정용용 정은주 정태민 채운석 천광수 최미화 최수경 최영이 최재철 최희숙 허정길 현주익 황영하 황인철

[12월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익현 김대승 김동우 김명근 김미경 김아름 김유순 김종혁 김주훈 김현숙 김희진 문영만 박두식 박영천 박용호 박은경 방용승 송동한 송철 안경숙 오기주 오동선 오인빈 유희탁 이병식 이성교 이용숙 이용신 이윤성 이장우 이종구 이진규 전병생 전효일 전호정 정운승 정용용 정은주 정태민 채운석 최미화 최민우 최수경 최재철 허정길 현주익 황영하 황인철

전주평통사

[11월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대권 권동용 김광재 김미란 김민정 김수돈 김여진 김영순 김영호 김재병 김충만 김효숙 노백순 노재화 문화규 민혜경 박상희 박우성 박원희 방용승 백혜영 심병호 양경자 양진규 오은미 오현숙 유미혜 유영진 이기봉 이동주 이보희 이석영 이승렬 이승희 이영식 이재호 이종태 장정우 정재철 정찬홍 정형용 조경희 조인정 주용기 최금희 최명호 최정옥 허만승

[12월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대권 고이석 권동용 김광재 김미란 김민정 김수돈 김여진 김영호 김재병 김충만 김효숙 노백순 노재화 문화규 민혜경 박낙규 박상희 박우성 방용승 백혜영 서경미 심병호 양경자 양진규 오은미 오현숙 유미혜 유영진 이기봉 이동주 이보희 이석영 이승렬 이승희 이영식 이재호 이종태 장정우 장춘철 정재철 정찬홍 정형용 조경희 주용기 최금희 최명호 최정옥 허만승

광주전남평통사

[12월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광석 강득룡 강복현 강용재 강위원 강의준 강정원 고병국 고영민 고영철 고재한 고정식 고희문 박길성 구구순 권용식 권준용 기원주 김경윤 김경일 김경태 김관주 김광덕 김광수 김광식 김광열 김국용 김기남 김기만 김누리 김대성 김대열 김대현 김덕현 김도곤 김동선 김동열 김문 김미경 김미숙 김민해 김범중 김병균 김병기 김병모 김병태 김선발 김선일 김선태 김선호 김선호 김성룡 김성수 김성주 김성수 김성철 김세연 김수경 김수미 김순중 김승태 김양수 김양수 김영식 김영위 김영호 김옥길 김완진 김요섭 김용성 김용재 김은곤 김은숙 김은희 김인숙 김재현 김재현 김정호 김준희 김진진 김창선 김창주 김청필 김태욱 김행연 김현주 김호산 김형식 김희용 나성근 나옥석 나종필 노기탁 노병남 류승환 마대중 마삼진 마승희 모영현 문순이 문영란 문유신 문은조 문재식 문형국 박광순 박광운 박귀순 박규상 박명섭 박미라 박병섭 박병을 박상석 박상복 박석민 박석환 박선이 박승구 박승옥 박오열 박옥열 박 웅 박윤수 박재욱 박정훈 박종삼 박종섭 박종주 박종찬 박종재 박종택 박주순 박창곤 박필수 박홍순 배경섭 배무궁 배성환 배영일 배정섭 배준진 배금렬 배은경 백지은



회비와 후원금 (11,12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서상용 서영옥 서정대 서중환 서창호 서현화 소재삼 손민섭 손수영 송병준 송봉섭 송진환 송호철 송효현 신화균 심재순 안병일 안성례 안종기 안주용 안희만 양순규 양승집 양효라 엄상명 오공희 오근선 오대경 오승경 오승주 오옥목 오철용 오하근 오해관 오형욱 유영순 유옥상 유원상 유종천 유진이 윤구현 윤동주 윤선하 윤영덕 윤영배 윤준서 윤종근 윤형현 윤홍연 이광교 이광철 이교창 이근자 이귀임 이규학 이기호 이기훈 이병식 이병연 이상범 이상호 이선휴 이송형 이수빈 이송진 이송현 이양범 이영기 이영형 이원열 이용대 이용섭 이용범 이원석 이윤옥 이장수 이재광 이재덕 이재명 이재인 이재창 이재휘 이정화 이정훈 이준경 이준성 이철우 이태석 이태옥 이향재 이현수 이형민 이희수 임광석 임대명 임원택 임재접 임현삼 임홍택 임현삼 장관철 장귀영 장덕자 장두석 장봉식 장세근 장승영 장애란 장연수 장우광 장재의 장주섭 전경일 전승룡 전영남 정기섭 정경호 정기대 정길주 정동석 정록호 정석기 정승창 정영완 정영호 정옥재 정유철 정일태 정종범 정종득 정중석 정찬록 정철주 정행안 정현경 정형달 정혜원 정홍균 정희익 조용석 조진태 조창두 조현자 주근호 주승민 주효순 진재영 채일손 최기호 최루미 최병상 최성 최성민 최영수 최영우 최윤희 최은숙 최준철 최지연 최진연 하승하 한강희 한경진 한명철 한병일 한봉철 한혜숙 허종 홍석주 홍용식 완도제일교회 광주민들레교회 광주무등교회 광주큰사랑교회 광주무진교회 무안용학교회 강진병영교회

안동평통사

[12월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민석 강석주 강성중 권영희 권정에 권주원 김두년 김명희 김수동 김영애 김옥희 김인숙 김정석 김정희 김주철 김지섭 김창환 김춘섭 김관갑 김현택 김혁배 김현숙 민현주 박무식 박용재 박재근 박종규 박화부 배용한 손현복 우성섭 유준우 윤지홍 이 창 이규중 이병현 이천우 이태환 이혜선 장호철 정복순 정철환 조선아 조한웅 차명숙 최난희 최형석 피재현 한영선 한철희 함석호

대구평통사

[11월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고경수 고희립 규곡은 구인호 권항숙 김대식 김동필 김병길 김상임 김영숙 김옥희 김진영 김현택 나미숙 남태우 노의학 문상태 박기백 박문수 박배일 박성민 박수봉 박순종 박재범 박재중 박진강 박태희 배찬호 백창욱 서수녀 손영준 송철환 신동숙 양승호 엄상현 유소희 이병수 이상규 이상술 이영훈 이오식 이옥희 이인경 이준원 이창우 이창주 임성열 임진수 장성대 전창훈 전호관 정경식 정민규 정병록 정용섭 정우달 정진술 조규천 주경봉 차상혁 하재철 한기명 한상욱 황병윤

[12월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고경수 고희립 구인호 김동필 김병길 김상임 김영숙 김옥희 김진영 김현택 나미숙 남태우 노의학 박기백 박문수 박배일 박성민 박순종 박재범 박재중 박진강 박태희 배찬호 백창욱 서수녀 손영준 송철환 신동숙 신명호 양승호 유소희 이병수 이상규 이상술 이영훈 이오식 이옥희 이인경 이준원 이창우 이창주 임성열 임진수 장성대 전창훈 전호관 정경식 정민규 정병록 정용섭 정우달 정훈교 조규천 주경봉 차상혁 하재철 한기명 한상욱 허정호 황병윤

부산평통사

[12월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김건우 김남기 김유중 김재연 김지영 김창호 김홍술 석혜진 손재현 안명준 이덕순 이할신 이익직 이종명 이화진 장영현 정성록 제일호 최영희 최용호 최재수 이경희 신봉스님 전순홍 조관래 김동석

김제평통사(준)

[12월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김영기 김영미 김익현 김진원 김형애 나현균 남궁윤 노기보 노영웅 박기주 박정하 박종혁 방원필 천창주 손은하 심성희 엄영애 오명연 오은숙 오인근 유성룡 유재흠 이봉원 이수금 이용만 이태영 이현수 임승기 장덕상 정안석 최규섭 최호길 황승린

평화통일연구소

[11월 이사회비] 강정구 김정호 노재열 신정길 임승계 홍영진

[11월 후원금] 강진희 고효완 김기오 김미령 김창범 류승화 민경숙 박복희 이근수 이범준 이선엽 이옥숙 이왕재 정향란 조미향 한양재 한혜영

[12월 이사회비] 강정구 김정호 김중수 노재열 신정길 임승계 조현정 홍영진

[12월 후원금] 강진희 고효완 김기오 김미령 김창범 류승화 민경숙 박복희 이근수 이범준 이선엽 정향란 조미향 한양재 한혜영

편집후기

[평화누리통일누리]를 스마트폰으로 보다?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영상통화를 하고, 실시간으로 소식을 나누는 요즘 세상에 종이로 된 잡지라니, 참 매력에 없을 듯도 합니다. 가뜰이나 빠듯한 재정상태를 보니, 매달 회지를 발행하는 게 더욱 비경제적이라 느껴지기도 하지요. 사실 1~2년 쯤 전 어느 지역 총회에서는 ‘별로 읽지도 않는 걸 뭐하러 큰 돈을 들여 회지를 만드느냐?’는 의견도 나왔었고, 경비절감 차원에서 ‘나에게는 회지를 보내지 말라’고 당부하던 회원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소식이나 이메일 뉴스레터,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가 대신하지 못하는 회지 역할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지요.

아무튼, 제가 하고픈 말은요.. [평화누리통일누리]를 평통사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기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스마트폰에서는 내려받은 PDF 파일을 전자북처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iBooks 라는 앱을 쓰세요~

경비절감을 위해 회지 절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귀띔입니다. ㅋㅋ

총회 준비로 좀 바듯한데 설 연휴도 있어서 마감일을 맞출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무사히 1월호가 나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애정듬뿍 담고 읽어봐 주세요~

-홍보팀장 오미정